

중앙SUNDAY-아산정책연구원 공동기획 한국문화 대탐사 ⑩ 외국어 교육

# 조선시대 사역원선 외국어 안 쓰다 적발되면 곤장 세례

(司譯院)

한국엔 영어 광풍이 분다. 영어를 못하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꿈꾸기 힘들다. 외국어 교육에 관한 우리의 자화상은 무엇인가. 조선은 외국어 교육 체계를 단단히 만들었다. 언어 엘리트층을 소수만 선별했지만 확실히 키웠다. 어학 공부를 누구에게나 개방하지만 책임지지 못하는 오늘날 고등교육 체계와는 달랐다. 뜻밖에 조선의 외국어 교육 방식엔 우리가 몰랐던 지혜가 담겨 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편, 정부서물창사 별관(외교부) 후문 우측 30m 지점 정단에 있는 사역원 표식. 조선시대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을 맡았던 기관이다. 552년 큰 건물에 대해 상·상사당상·한학전합청 등 30여 개 청이 있었다.

조용필 기자

조선의 외국어 시험과 교제

## 역관에게도 사서삼경 읽히며 인성교육… 합격자 70%가 10~20대 초반

이남희 원광대 한국문화학과 교수  
임보미 아산정책연구원 인턴

28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있는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들렀다. 35만 종의 책 65만 권이 있는 곳이다. 그중 외국어 교재를 파는 D코너에서 담당 직원의 도움으로 국내 출판 외국어 교재를 검색했다. 키워드 ‘영어’를 치니 1372종이 나온다. 중국어는 3134종. 직원은 “외국에서 출판된 영어 교재까지 포함되면 실제로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많은 데는 책이 1, 2, 3권으로 나눠 분류하는 등 세분돼 그럴 가능성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물론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

중국·몽골·왜·여진 4개 언어 교육  
외국어 교제 조선 초기에 21종  
요즘 눈으로 봐도 시험 수준 높아

나 인쇄술이 발달 안 된 시대임에도 꽤 많은 외국어 서적이 나왔다. 당시의 글로벌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어와 관련, 세종실록에 나오는 교재를 살펴다.

문어체 중국어인 한어학(漢學) 교재는 시(詩)·서(書)·사서(四書), 『노제대학』 『직

안성규 기자, 김석근 아산정책연구원 인문선터장  
askme@joonga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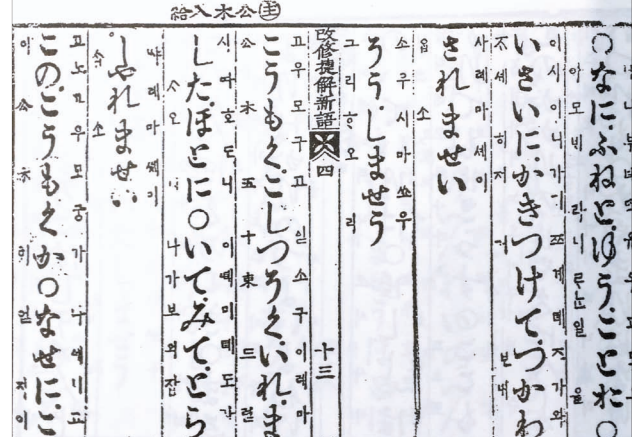
1400년 어느 날, 지금의 서울 종로구 도림동 자리에 있던 사역원. 숨이 멎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다. 몽골어 생도 김수현(가명)이 곤장을 맞으며 토하는 신음이다. 중국어·여진어·일어·몽골어 역원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진다. “셋이요…” 곤장 소리에 이어지는 비명. 그는 다섯 대를 맞고 곤죽이 됐다. 『조선왕조실록』을 토대로 재구성.

김수현은 ‘원내에선 전공어만 쓴다’는 규칙을 어겨 맞았다. 세종 24년 2월 사역원 도제조 신개가 “본원(사역원) 안에선 우리말을 금하고 중국말만 쓰며… 몽골어·왜어·여진어도 이 예에 의해 시행토록 하옵소서”라고 청해 만들어진 규칙이다. 위반하면 살벌한 벌이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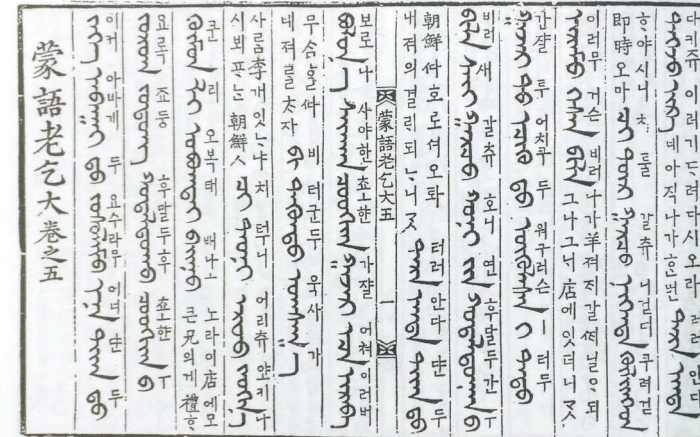
“재범은 차지(次知, 하인을 옥에 가둠) 1명, 삼범은 차지 2명, 사범은 3명을 가두고, 오범 이상은 형조에서 논죄하며…생도는 그때마다 매를 때리도록 하소서…”

말 잘못하면 곤장 맞고, 5범 이상이면 감옥에 보내는 으스스한 방침은 6개월 뒤 재확인됐다. 제도의 정신은 수백 년 이어졌고 오늘 날엔 영어 교육기관에도 활용된다.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예다. 학생은 국어·국사 외의 수업과 일상에서 영어를 써야 한다. 위반 학생은 학생 법정에 선다. 판결은 벌점, 외출 금지다. 그래도 사역원보다 한결 부드럽다.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부장은 “전엔 강하게 규제했지만 인권을 고려해 이렇게 바꿨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왕조들은 외국어 교육을 중시했다. 신라는 일어를 관장하는 ‘왜전(倭典)’을 썼다. 고려는 통문관에서 한어(漢語)를 가르치다. 1276년 충렬왕 때 ‘사역원’으로 바꿨다. 조선은 사역원에서 한어·몽골어·왜어·여진어(뒤에 청어) 4개 언어를 주로 교육했다. 그



조선 시대 일본어 회화책 『개수첩해신어』와 몽골어 회화책 『몽어노골대』(오른쪽)의 한 페이지.



출처 사역원 역사학 책판연구, 고려대 출판부

런 세부 사항은 세종 때 완성됐다.

세종은 관리들의 외국어 수준이 성에 차지 않았다. 신개가 아팠다. “중국말에 통하는 자가 드물며… 어전에서 통역할 사람을 얻기 어렵습니다…”, 10년이나 억혀도 사신으로 중국에 두어 달 다녀온 사람만큼도 못함을 맞으며 토하는 신음이다. 중국어·여진어·일어·몽골어 역원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진다. “셋이요…” 곤장 소리에 이어지는 비명. 그는 다섯 대를 맞고 곤죽이 됐다. 『조선왕조실록』을 토대로 재구성.

“…언어는 털끝만 한 차이로 만사가 그릇될 수 있다. 그러기에 요동 향학에 입학을 청하게 했는데 미흡하다. 북경은 가까우니 국자감 입학을 청하는 게 어떠할까…”(세종 15년·1433년)

외국어 능통자를 판서(判書·장관급)으로 등용하며 우대했다. 세종 때 김충, 세종 때 이흥대·김유례, 성종 때 장유상·황종 등이었다. 그러자 사헌부 대사헌과 사간원 대사간들이 상소했다. “공로도 없는데 갑자기 2품을 주시니…관작을 외람되게 제수한 것이 오늘날과 같이 심한 때는 없었습니다…”

왕들은 술선수범했다. 중국어·몽골어를 다 잘했다고 알려진 세종은 세자(후에 문종)에게도 중국어를 배우게 했다. 아들 세자도 ‘수준급 중국어 실력’을 사신 면대 자리에서 보여줬다.

▶세조=“강계의 길이 험하고 멀어 급히 가자 못할 것 같습니다. 창건대 대인을 따라온 군사에게 바로 요동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달려가서 유시하게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까?”

▶통역=“대인이 강계로 돌아가면 마땅히 강 위의 군사들에게 달랠가 유시해야 합니다.” ▶사신=“귀국 군사가 이미 강을 건너었다면 우리도 제때에 가지 못하는데 의주의 군사가 어떻게 제때에 이를 수 있었습니까?”

▶세조=“통사가 잘못 전하였습니까.” 세조의 중국어는 역관 잘못을 즉시 잡아낼 만큼 수준이 높았다. 성종도 능통했다.

▶신하=“전하께서 중국어를 하는데 복잡 한 정부에 지장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5년 이상 걸리면 옥살이도 시켜

주변국 관계 증시에 어학 교육 강화

외국어 실력 탁월하면 장관급 등용

세종, 중국어 능통…세조는 통역 훈수

양반은 한·중국어 2개 국어 구사

정조, 만일 대비해 몽골어 교육 지속

B=我着湯錢去來(돈은 내가 준비할게.) (목욕탕에 들어갔다.)

A=衣裝 帽子 靴子 都放在這櫃裏頭 分付這管混堂的看者 到裏間湯池裏洗了一會兒 第二間裏睡一覺 又人去去洗一洗 却出客位裏歇一會兒 梳頭洗了脚(옷·모자·신발은 이 상자에 넣어 맡겨라. 탕에 들어가 한 번 씻고, 한숨 자고 씻은 다음 휴게실에서 쉬고, 머리를 빗기고, 발톱을 다듬어라.)

오늘날 사어나 모습과 흡사한 이 장면. 조선의 인기 회화교본인 『박통사』에 나오는 대화다. 한·중국어 대화 중 한글 부분인데 오늘날 써도 손색없다. 그보다 앞선 교본도 있다.

A:대가 종나라리래(大爺, 從那裏來) (여이구 형씨, 어디서 오시는지요?)

B:아종고려왕경래(我從高麗王京來). (고려 왕경(개성)에서 왔습니다.)

A:여금나리거(如今那裏) (그럼 어디로 가시는지요?)

B:아왕복경거(我往北京去) (베이징으로 갑니다.)

고려 때 실용 중국어 회화서 『노걸대(老乞大)』의 첫 페이지 대화 장면이다. 제목은 ‘나하오 중국인’쯤 된다. 고려 상인이 베이징까지 가는 길에 겪은 일을 중국인과의 대화 형식으로 풀었다. 몽골어·왜어 판도 나온 『박통사』 『노걸대』는 실용 회화 부록 역대 베스트셀러였다. ‘유명 어학 강사’도 있다. 최세진이

다. 세종 때 『박통사』를 한글로 주석한 그는 성종 때 사역원 중국어 담당자로 선발됐다. 『사성통해』를 편찬하고 『노걸대』 『박통사』를 언해했으며 『노박집람』 『훈몽자회』(이문집람)을 편찬했다.

역관 체제만큼 주목할 부분은 조선의 이중 언어 환경이다. 양반 계층은 중국어와 관련, ‘준(準)이중 언어 능숙자’였다. 1480년 성종 11년. 왕과 대신들이 ‘조선의 자유무인’ 어을우동(於乙宇洞) 문제를 논의했다.

영의정=“어을우동의 죄는 비록 주살해야 하지만 인주(人主)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덕을 삼아야 합니다.”

도승지=“다른 음탕한 자와 비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박통사』

『노걸대』

예조참판·한성부좌윤=“인주는 정물을 써 어지 비율(比律)하여 죽여선 안 됩니다.”

왕=“…(갑게 말하며) 어을우동이 음행을 자행한 것이 이와 같은데 중건(重典)에 처하지 않고서 어찌하겠는가?”

(왕이 중벌한다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회의는 길게 이어진다.)

그 열기가 실록에 이렇게 전한다.

受常參視事。同副承旨李拱, 將義禁府三覆於乙宇洞罪案, 啓曰: “於乙宇洞, 前爲秦江守全妻時, 奸守山守職等罪, 比《大明律》背夫在逃, 因而改嫁, 數不待時。” 上問左右, 領議政鄭昌孫對曰: “…종각·…” 李昌即曰: “刑罰, 世輕世重。” 於乙宇洞, 淫亂如此, 宜重典.” 上曰: “然.”

왕과 신하의 격론, 고인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그조도 한자로 적은 것이다. ‘동시 동역사’를 뛰어넘는 ‘동시 통역·필기사’의 비상한 전문 능력이자. 조선 512년, 사관은 임금 앞에서 대소사를 한자로 동시 통역·필기했다. 현대 동시 통역사가 그만큼 할 수 있을까. 인구의 5~10%로 추정되는 양반이 전문가 풀(pool)이었다. 양반은 우리말로 문·사·철을 생각하고 말했지만 글은 한문으로 썼다. 영터가 아니라 중국인도 놀랄 수준의 한문이다. 그들의 두뇌는 바이링구얼이었다.

그러나 잠재력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세종은 사역원에 문신·생원·진사도 기용하며 집진시키고 사신에 동행하는 특혜를 줬지만 효과를 못 봤다. 집진이라 여기지도 않고 베이징도 멀다며 마다했다. 그런 단한 마음은 이중 언어능력을 사장시켰다. 영어를 중심으로 한 서양 언어 교육은 1882년 미국과의 통상조약이 체결된 이듬해 동문학(同文學) 설립으로 시작했다.

월리엄 오버홀트는 1992년 『중국의 부상(The Rise of China)』으로 통찰력을 보여준 저자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이 전하는 그의 말이 예사롭지 않다.

“오버홀트는 한·미 동맹이 마일 동맹보다 중요해진다고 했다. 18년 홍콩·싱가포르 생활 경험이 근거다. 현지 부임 때 한국인은 가족과 와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권 대학에 보낸다. 일본인은 혼자 부임한다. 시스템에서 빠지면 재진입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양국은 세계화 정도의 차이가 난다.”

조선은 주변 정세에 대처하려는 전략적 사고의 일환으로 외국어 교육 체계를 만들었고 왕이 술선수범했다. 그중 회화 중시, 현지 유학, 언어생활관 같은 지혜는 요즘까지 이어진다. 우리는 조상이 물려준 큰 지혜를 활용하는 데만 머무를 것인가. 아니 그것보다 그 지혜를 제대로 활용은 하고 있는가.

아산정책연 ‘북한 인권 결의안’ 전문가 대담

## “북, 인권문제를 체제 변화 시도로 간주 중국 움직이려면 언어 사용 신중해야”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29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결론과 후속 조치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인정하고 모든 인권침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 사법기구에 회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유엔 COI는 지난 2월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합법적인 국제기구에 의해 확인된 최초의 객관적인 보고서다.

이와 관련,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북한 인권 관련, 전문가 회의가 지난 22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렸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엔 한승수 전 외무부 장관, 거리 세모어 하버드대 벨퍼연구소 이사장, 아비도민 윌리엄스 해이그 국제정의연구원 원장,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글로벌거버넌스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함재봉=이번 보고서 발간과 때맞춰 COI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해이그연구소를 방문하여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윌리엄스=20일에 커비 위원장과 세르비아의 비셰르코 조사관이 헤이그를 방문하여 보고서 공식 발간 행사를 개최했다. 각각 외교관, 네덜란드 정부 인사, 국제재판소장 및 다른 재판관, 학계와 언론계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일반인엔겐 그야말로 큰 충격이었다.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성폭행과 고문 등은 이번 보고서의 큰 의미다. 앞으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세모어=중국이 현실적으로 김정온에게 실존을 느끼고 불만족스러움을 표현할 경험에 근거다. 현지 부임 때 한국인은 가족과 와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권 대학에 보낸다. 일본인은 혼자 부임한다. 시스템에서 빠지면 재진입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양국은 세계화 정도의 차이가 난다.”

조선은 주변 정세에 대처하려는 전략적 사고의 일환으로 외국어 교육 체계를 만들었고 왕이 술선수범했다. 그중 회화 중시, 현지 유학, 언어생활관 같은 지혜는 요즘까지 이어진다. 우리는 조상이 물려준 큰 지혜를 활용하는 데만 머무를 것인가. 아니 그것보다 그 지혜를 제대로 활용은 하고 있는가.

▶함재봉=보고서가 발간된 바로 그날 북한이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다.

▶신창훈=국제적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했다는 평가도 있다.

▶윌리엄스=한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보고서 조치를 이행하는 측면뿐 아니라

엔을 지원할 역할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다만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출신 이므로 사무총장의 활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세모어=미국의 안보 이익은 인권 이익보다 항상 우선시돼 왔다. 미국이 인권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북한의 다양한 군사 문제를 다루고 억제하고 제한하기 위한 협상력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창훈=그러나 미국에서 지난해 4월 로이스 의원이 발의한 ‘북한 제재 법안(HR 1771)’은 비록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제재 COI는 지난 2월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합법적인 국제기구에 의해 확인된 최초의 객관적인 보고서다.

이와 관련,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북한 인권 관련, 전문가 회의가 지난 22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렸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엔 한승수 전 외무부 장관, 거리 세모어 하버드대 벨퍼연구소 이사장, 아비도민 윌리엄스 해이그 국제정의연구원 원장,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글로벌거버넌스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신창훈=보호책임의 문제는 군사개입이나 인도주의적 간섭이냐를 두고 혼동을 주고 있다. 보호책임이 최종적으로 군사개입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북한의 경우 보호책임과 관련해 군사적 개입이 논의된다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다.

▶한승수=북한 인권과 관련해 한국 내 여론은 극단을 오가는 경향을 보인다. 만일 여론 몇몇 전문가에 의해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야 한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또 다른 복잡 한 문제는 우리가 중국과 논의해야 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대화할 논쟁적인 이슈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

▶신창훈=그렇다면 인권문제의 핵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이 북한을 더욱 압박할 수 있을까.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세모어=문제는 모든 대북제재가 궁극적으로 중국의 협력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정확하고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권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발전적인 접근방법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말하는 것이다. 중국과의 대화에서 인권은 적절한 단어는 아니다. 커비 위원장 역시 중국을 다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기 삼촌을 그렇게나 극적인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있는 나라를 자기 옆집에 두고 있는데, 중국이 이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말하고 있다.

▶함재봉=‘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개념은 이렇다.

▶윌리엄스=공국적인 최후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리비아는 이제 보호책임과 동의어로 인식되고 있을 만큼 조치가 실제로 행사되었던 국가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리비아와 같은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다. 다만 보호책임과 관련해 예방적 측면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보호책임의 장점은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된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시민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경우, 혹은 정부 스스로가 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일 경우 보호책임은 국제사회에 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현재 북한주민에 대해 ‘보호책임’이 있는가. 내 의견으로는 그렇다. 분명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제노사이드(대량학살) 또는 보호책임 발동에 초점을 두지만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방안도 담고 있다. 인권문제를 핵문제와 연계하는 방안은 없는가.

▶신창훈=보호책임의 문제는 군사개입이나 인도주의적 간섭이냐를 두고 혼동을 주고 있다. 보호책임이 최종적으로 군사개입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북한의 경우 보호책임과 관련해 군사적 개입이 논의된다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다.

▶한승수=북한 인권과 관련해 한국 내 여론은 극단을 오가는 경향을 보인다. 만일 여론 몇몇 전문가에 의해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야 한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또 다른 복잡 한 문제는 우리가 중국과 논의해야 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대화할 논쟁적인 이슈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

▶신창훈=그렇다면 인권문제의 핵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이 북한을 더욱 압박할 수 있을까.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세모어=문제는 모든 대북제재가 궁극적으로 중국의 협력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정확하고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권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발전적인 접근방법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말하는 것이다. 중국과의 대화에서 인권은 적절한 단어는 아니다. 커비 위원장 역시 중국을 다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기 삼촌을 그렇게나 극적인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있는 나라를 자기 옆집에 두고 있는데, 중국이 이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말하고 있다.

▶함재봉=인권문제 해결의 궁극적 목적은 체제 변화라고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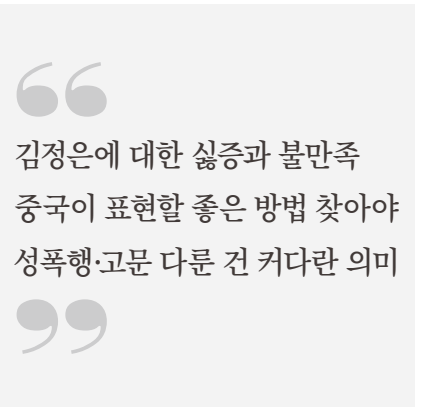
▶세모어=내가 평양에 앉아 이 보고서를 읽고 있다면 체제 붕괴처럼 들릴 것이다. 중국 정부 역시 장정제 처형으로 인해 놀랐을 것이다. 중국은 함께 일하며 중국의 이익을 보호해줄 만한 영향력 있는 북한 내부 인사를 가졌다고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처형당했다. 그러나 중국으로서의 북한에 일말의 영향력이라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하든지 등 강구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거리 세모어



신창훈



한승수



함재봉



아비도민 윌리엄스

“  
김정은에 대한 실종과 불만족  
중국이 표현할 좋은 방법 찾아야  
성폭행·고문 다른 건 커다란 의미  
”

언어·문자를 B 언어·문자로 바꾸는 것. 텍스트는 『경국대전』이었다. 『경국대전』을 읽고 여진어로 번역하라’는 식이다. 현대의 TOEFL·TOEIC 같은 영어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렵다. TOEIC은 문법·독해·듣기 시험 보고 TOEFL엔 작문 시험이 추가된다. 대학생 유하늘(27)씨는 “조선시대 역과 시험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시험 합격자는 방목, 즉 합격자 명부를 통해 알 수 있다. 현전 방목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연산군 4년(1498) 때의 것. 이때부터 역과가 폐지되는 갑오경장(1894년) 때까지 177회 실시됐다. 합격자는 2976명. 한학 1863명, 일본어·문자 1113명.

시험 합격자는 방목, 즉 합격자 명부를 통해 알 수 있다. 현전 방목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연산군 4년(1498) 때의 것. 이때부터 역과가 폐지되는 갑오경장(1894년) 때까지 177회 실시됐다. 합격자는 2976명. 한학 1863명, 일본어·문자 1113명.